

<http://dx.doi.org/10.17703/JCCT.2021.7.3.147>.

JCCT 2021-8-17

## 예멘과 에티오피아의 문화이해와 지역협력 방안 연구

### A study on cultural understanding and regional cooperation in Yemen and Ethiopia

서대성\*, 임헌욱\*\*,

Dae-Sung Seo\*, Heon-Wook Lim\*\*

**요약** 본 연구는 커피를 선호하는 한국인들에게 예멘·에티오피아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지역협력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슬람지역은 직접 협력을 할 수 없어 커피산업을 통한 교류방법을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적 교류 모델과 선행연구를 조사하였고, 초기 문화와 종교의 특징을 알아보고 문화완충과 예멘의 이슬람 분쟁 역사를 통한 정치종교적 지역 관계를 알아보았고 마지막으로 커피지역을 비교하기 위해 지역 커피산업과 문화에 대해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슬람 연구에 대한 지역 협력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첫째, 문화 충돌 극복, 둘째, 새로운 전략적 지역협력, 셋째, 종교보다 문화적 접근, 넷째, 새로운 기술적 지역협력, 다섯째, 예멘 난민 지역협력 병행, 여섯째, 에티오피아에서의 교두보(예멘 교역지역협력) 등의 방식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커피경제, 종교, 난민 도시, 지역협력, 문화교류

**Abstract**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Yemen and Ethiopia for Koreans who love coffee and to find ways to cooperate with the region. The Islamic region is not able to cooperate directly, so we thought about how to exchange through the coffee industry. Therefore, the regional exchange model and prior research were examined. And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early cultures and religions. We learned about political and regional relations through cultural cooperation and the history of Islamic conflict in Yemen. Finally, the local coffee industry and culture were explained. In conclusion, education is needed for regional cooperation in Islamic studies, and for this purpose, First, overcoming cultural clashes; Second, new strategic regional cooperation, Third, a cultural approach rather than a religion, Fourth, new technological regional cooperation; Fifth, parallel regional cooperation with Yemeni refugees; Sixth, a method such as a bridgehead in Ethiopia (Yemen trade and regional cooperation) was proposed.

**Key words** :Coffee economy, religion, refugee city, regional cooperation, cultural exchange.

#### I. 서론

역사적으로 예멘과 에티오피아는 한 왕국이였다. 그러나, 지금은 종교적, 사회성향이 전혀 다른 국가이다.

영국, 캐나다, 미국의 유적 발굴팀이 시바 여왕의 신전 등을 발굴해서 실존한 역사임을 입증했다.[1] 솔로몬왕과 시바의 여왕 사이에 태어나 에티오피아의 초대 국왕이 되는 메넬리크1세가 십계명을 보관한 법궤(Ark of

\*정회원, 성결대학교 파이테이아학부 조교수 (제1저자)  
\*정회원, 한세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1년 6월 21일, 수정완료일: 2021년 7월 21일  
게재확정일: 2021년 7월 30일

Received: June 21, 2021 / Revised: July 21, 2021  
Accepted: July 30, 2021  
\*Corresponding Author: dais3s@gmail.com  
Dept. of Division of Paideia, Sungkyul Univ, Korea

the Covenant)를 에티오피아로 가져왔다는 설도 있다. 첫째, 인센스 로드와 커피 로드, 시바의 여왕 루트가 동일하다. 여기서 인센스 로드는 (향(香)의 길)을 의미한다. 이는 성경에 동방박사의 예물로 유명하며, 로마시대에 유향나무는 예멘, 오만에서만 자라고 있었다. 오만에서 수요지인 이집트, 이시리아, 로마로 가는 2400km의 무역로가 형성되었다. 또한 에티오피아 하라의 재래시장에서 거래되듯이, 각종 향신료와 곡물, 커피 생두가 모여 아라비아 반도로 전해진 인센스 로드이다. 이 길을 사이에 두고 많은 국가들이 흥망을 거듭하였으며 결국 찬란한 문명을 남기며, 최후의 승자는 로마였다. 로마가 이 길을 장악하자 고대도시들은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져 전설로 남게 되었다. 그 이후 이슬람에 의한 커피 로드와 시작되었다. 둘째, 유다 왕국과 예멘(시바 왕국)과의 교류이다. 기원전 10세기 시바 왕국의 여왕이 이스라엘 솔로몬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으며, 성인이 된 뒤 솔로몬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계명을 담은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와 악숨왕국을 세웠다. 에티오피아인들은 이 왕국이 에티오피아의 시초이며, 건국왕은 메넬리크 1세라 한다. 셋째, 시바 왕국(예멘)의 악숨 왕국(에티오피아) 건립이다. 시바족의 여왕의 아들인 메넬리크 1세는 무리를 이끌고 홍해를 건너 아프리카로 건너서, 이들이 정착한 곳이 에티오피아이다. 솔로몬 앞에 무릎 꿇은 시바의 여왕은 솔로몬과 지혜 대결을 벌이던 여왕이다. 이 시바족의 나라는 지금의 예멘 지역으로 그 당시에 이주 목적은 향신료인 유향이었다. 그 인센스 로드의 중심에 있었다. 시바인의 후손들은 곧 에티오피아 북부 도시 악숨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우기 시작하였다. 4세기 무렵에는 악숨 왕국으로 성장한 다음, 쿠시 왕국을 무너뜨린 나라이다. 솔로몬왕과 시바의 여왕이 만나는 시대(BC 10C경)를 거쳐 에티오피아 시대를 맞게 된다. 에티오피아와 예멘이 본래 두 나라가 한 나라였다 라는 관점도 있다. 넷째, 유대교의 수용이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메넬리크가 청년으로 성장해 아버지인 솔로몬왕을 찾아간 대목을 자랑하기를 좋아한다. 솔로몬왕은 메넬리크가 자신의 아들임을 확인했으며, 그가 시바로 돌아갈 때 성직자와 학자겸 기술자 등 1만 2000명의 유대인을 동행하게 했다고 전해진다. 이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보관한 법궤를 메넬리크 편에 에티오피아로 보냈다고 한다. 이 법궤는 수도 아디스아바바로부터 960km가량 떨어진

악숨의 마리아 시온교회에 안치되어, 현재까지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궤의 존재여부를 배제하더라도, 중동지역의 유대인과 비교적 그곳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아프리카 사람들 사이에 밀접한 교류가 있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 오늘날 에티오피아에는 자신들이 유대인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유명한 팔라샤(암하라 말로 추방된 사람, 격리된 사람, 이민족을 뜻함.) 족들이 그 예이다. 그들이 행하는 유대교 의식은 고대 이스라엘 왕국의 그것과 흡사한 데가 있다. 물론 그들이 디아스포라 시대의 유대인들과 혈연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검은 피부가 현지인과의 극심한 혼혈을 의미한다는 유연관계 이외에는 과학적으로 규명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1973년 이스라엘 종교 당국은 그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했으며, 그중 일부는 이스라엘로 이주하기도 했다. 또 하나 특별한 이주 현상은 탈식민지화시기에 북아프리카에 상당수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세파라딤)의 존재 사실을 설명해 줄 중요성이 있다. 이는 종교적인 지역협력을 연구하지 않고 언어만 익힌다면, 협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현재 이미 제주도도 와있는 예멘 난민들을 어떻게 지역협력 할 것인가이다. 이는 한국내 외국인 지역협력이나 현지 지역협력과 병행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 II. 지역적 교류의 모델과 선행연구

### 1. 커피 인센스 교류의 모형

본 논문은 기독교인과 초기 이슬람 문화의 어떤 점이 현재도 지역마다에서 문화적 발전을 이룬 현상을 바라본다. 그림 1의 요인으로 이들 두 국가 간의 커피 생산과 유통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고,[2] 내전이나 난민전후에 지역 간의 협력화와 교류화의 영향력을 문화적 관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오늘날 에티오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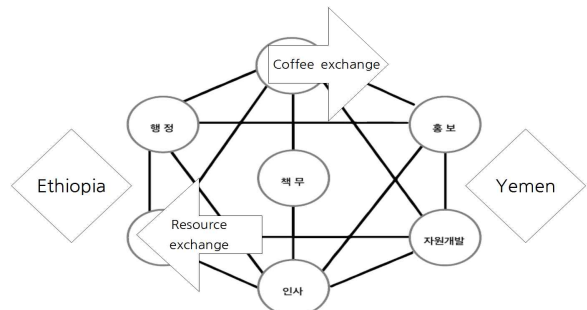


그림 1. 에티오피아와 예멘 간의 교류 요인  
Figure 1. Ethiopia and Yemen problem solving

아와 예멘은 어떻게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을까?

역사적으로 예멘에서 시작한 에티오피아는 시바 왕국에서 나왔다. 시바가 에티오피아를 품고 있던 것이다. 가까운 홍해 바다는 폭이 8km 정도로 오래 전부터 양측의 왕래가 잦았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예멘 쪽의 시바 족속들이 에티오피아에 정착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에티오피아(Axum)가 건국되어진다. 첫째, 예멘과 에티오피아 간의 교류이다. 에티오피아에 시바의 여왕의 이야기는 다르게 유래된다. 에티오피아인들은 이주한 시바의 여왕이 악숨을 수도로 정하고 예멘과 동아프리카 전 지역을 다스렸다고 한다. 건국신화에서 시바의 여왕 이름이 '마케다(Makeda)'이며 흑인으로 기록된다. 에티오피아 역사학자들은 시바의 여왕이 에티오피아에 살았다고 악숨에는 시바 여왕의 궁전이라는 고대 건축물과 고대 시바왕국의 궁터·시바왕의 목욕탕도 발굴되기도 했다. 이로써, 나중에 악숨제국(아비시니아 Abyssinian empire)로 성장하게 된다. 둘째, 종교 문화의 이질적 특징이 나타났다. 그럼, 유대교적 신앙 지도, 기독교 신앙의 배척, 식민지적 기독교 신앙 문화, 이슬람의 세력에 의한 지역 정치적 신앙 등이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져 왔을까? 첫째, 유대교화 시바의 왕국 이후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예멘은 지형상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있지 않고 그대로 바다로 흘러나간다. 이 때문에 시바 왕국은 수도였던 마리브에 '그레이트 마리브담'을 지었다. 이것이 예멘을 부흥으로 이끈 원동력임에 분명했지만, 동시에 국가의 쇠퇴를 부른 원인으로 작용했다. 시바의 왕국 말기에 관리 소홀로 인해 댐이 일부 무너져 내렸고, 사람들은 예멘을 떠나 북부로 이주했다. 국민이 빠져나간 시바의 왕국은 힘을 잃기 시작했고 결국 몰락했다. 힘야르 왕국(B.C. 115년에서 A.D. 522년)이 예멘 땅에 출현하였다. 힘야르(Himyar)는 예멘 남서부 고산 지대에 거주하던 시바 왕국의 셈족 부족들이었다. 이들이 오늘날에는 예멘 커피의 주산지인 이곳에서 유향나무 경작하며,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과거 당시 커피를 재배는 명확하지 않다. 현재 커피의 기원과 관련해서 보면, 1450년 수피 수도승이 첫 커피를 경작하고 그림 2와 같이 중동과 전세계로 확산되어 갔다. 시바 왕국은 다신교를 믿던 시바의 여왕은 솔로몬으로 인해 유대교로 개종한다. 이후 유대교인이 된 시바인들은 힘야르 왕국 때 기독교를 접하고 점차 개종하게 된다. 그러나 힘야르의 마지막 왕인 두 누와스(Dhu

Nuwas 450에서 525)는 예멘과 에티오피아에 기독교를 몰아내기로 작정한다. 예멘 북부 나즈란(Najran)의 기독교인들에게 유대교로 개종할 것을 강요하고, 불에 태워 죽이는 만행을 저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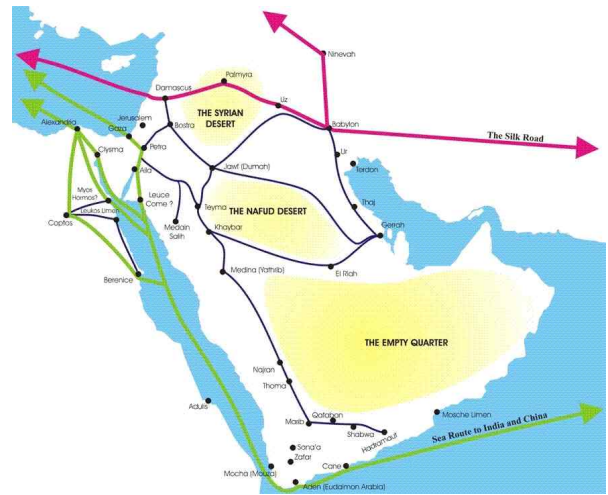


그림 2. 커피, 향료 루트와 교류  
 Figure 2. Coffee flavoring route and exchange

둘째, 기독교화와 배척이다. 에티오피아는 나자쉬(Najashi) 황제가 통치시기에, 당시 그는 기독교로 개종한 상태였다. 나자쉬는 기원후 530년 기독교의 수호자인 유스티누스(Justinus) 로마 황제에게 선박을 지원요청하고, 7만여 병력이 원정을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두 누와스 왕은 바다에서 자결했다. 전쟁에서 패배한 예멘은 에티오피아의 식민지가 됐다. 이 전쟁 속에 에티오피아 전사들을 통해 커피가 예멘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나중에 콥트 교회의 번영으로 이어진다. 그 이후 페르시아로 도망간 힘야르의 왕자 요구로 기원후 600년경 페르시아 군대가 예멘으로 파병돼 에티오피아인을 몰아냈다. 이로써 70년간 이어진 에티오피아의 예멘 통치는 끝이났다. 이후 마호메트의 이슬람교 창시(610년)를 거쳐 631년 이슬람 세력이 예멘을 지배했다. 당시 예멘을 통치하던 페르시아 총독인 바단(Badhan)은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무슬림이 됐다. 셋째, 이슬람화는 시바의 여왕 시절 예멘과 에티오피아는 이슬람국가와 기독교(에티오피아정교)국가로 갈라섰다. 코란에는 시바 여왕을 슈블림 발키스(Sublime Balkis)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있으며, 내용은 유대교나 기독교의 구약성서와 비슷하다.

## 2. 커피 교류의 선행연구

역사 문화의 동질적 특징 커피의 기원인 에티오피아에서 나온다. 동북쪽으로 홍해에 가까운 지역인 하라(Harar)는 이슬람교도들이 살고 있다. 이들은 종교가 같은 아라비아 반도의 국가들과 주로 교류하고 있다. 하라는 커피열매를 통째로 말리는 내추럴 방식의 커피 생산지로 유명한데, 이는 희소 가치가 높아 생산되는 커피의 대부분을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좋은 비싼 가격을 주며 사가고 있다. 에티오피아의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에서 홍해 쪽으로 갈수록 풍광이 아라비아 반도의 가파르고 거친 계곡을 닮아간다. 하라로 이어지는 2500~2700m의 고산지대는 수많은 화물차량들이 커피나 곡물, 지하자원을 홍해에 접한 지부티(Djibouti)로 실어나르고 있다. 지부티에 모인 하라 커피와 함께 홍해를 건너 예멘이나 사우디 아라비아로 팔려 간다. 반면에, 예멘의 서해 항구의 모카(mocha)항은 커피를 유럽으로 전파하는 17세기 무역의 중심지였다. 모카(mocha)항의 명성으로 세계 사람들은 ‘예멘 커피’는 ‘모카 커피’를 의미한다. 수에즈 운하(suez canal)가 개통 이후 다른 국가에서도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모카 항구가 감소되면서, 현재는 하라 커피처럼, 예멘 커피가 유기농 커피로 전환하면서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1] Mohammed, et al. (2019)은 예멘의 주요 커피 생산지에서 칼슘(Ca)은 예멘 커피에도 다량으로 존재했다. 이 높은 함량은 에티오피아의 커피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므로 칼슘(Ca) 함량은 상업적 관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두 커피인 예멘과 에티오피아 커피를 구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4] 이처럼 두 지역은 경쟁관계이자, 커피 생산면에서 최상의 품질을 공유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 III. 정치적, 종교적 지역 관계

예멘(Yemen)을 살펴보면, 수도는 사나(Sanaa), 국토 면적은 52만7,968km<sup>2</sup>, 인구 2,891만명이고, 종교는 대부분 이슬람으로, 시아파 47%, 수니파 53%로 비슷한 분포를 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 자료로 보면, 예멘의 통일 이후 내전으로 200만명 이상이 난민으로 나가고, 인구 2,000만명 이상의 예멘인들이 인간적 도움이 필요로 하다. 이슬람의 지역특성은 7세기부터 시작됐다. 예멘 아덴항은 16세기에는 오스만투르크에게 정복당했다가 증기선 저탄기지로 1839년 영국 동인도회사가 점령하면서 영국의 보호령으로 되었다. 1차 대전에서 패전

국 오스만투르크가 이 지역에서 철수하자 영국은 1918년 북예멘을 독립시키고, 남예멘은 지배 하에 두었다. 분단의 시초이며, 독립한 북예멘은 왕정이 유지되었다.

#### 1. 초기 문화적 종교적 특징

예멘은 깊은 무슬림 전통과 가장 큰 자이디 시아(Zaydi Shi'i) 그룹이 있다. 예멘의 북쪽은 시아파 내에서 자이디즘의 중심지이다. 자이디즘은 자이디족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치적, 종교적 자유 때문에, 이란보다 종교지도자(Imam)의 지위를 덜 중요시했다. 자이디는 군사 및 폭력 활동을 했다. 예멘 사람들은 마르크스주의, 민주주의, 이슬람주의, 군주제 및 다양한 직업 (영국, 오스만)에서 지구상의 다른 어떤 국가와도 달리 다양한 정치적 유대, 이데올로기 및 정부 시스템을 통과 한 경험이 있다. 이슬람 주의자들과 이슬람 운동은 예멘에서 끝났다. 예멘에서 이슬람의 오랜 역사가 거의 끝 나가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예멘 전역에서 와하비로 개종하고, 개혁 주의자 이슬람주의 운동이 인기를 얻고 있다. 예멘 북쪽의 자이디 시아파와 남쪽과 티 하마의 샤피 수니즘에 와하비즘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혼합 된 정치를 추구한다. 이는 부족, 상업 및 종교적 이해의 연합인 정당 이슬라(Islah)와 연계된다. 그러나 이 지역에 사라센 제국이 등장하기 바로 전에 기독교적인 영향도 포함되고 있다. 예를 들면, 100년 전 헬라어 본문 번역들은 가치가 있다. 고대 라틴어역(2C), 히에로니무스의 불가타역(4C말), 시리아어역(4~5C), 콥트어역(2~4C), 아르메니아어역(5C초), 고대 게오르기아어역(조지아 : 5C), 에티오피아어역과 고트어역(4C중기)가 포함된다.[2] 기독교국가로 선언한 로마가 과중한 종교과세 부담, 경제적 취약성, 산업의 파탄, 중간계층의 몰락, 경작지의 황폐 등으로 약해지는 시기였다. 당시 기독교를 포기하고 이슬람화된 이유도 경제적이지 못한 중·하류층인(과중한 종교세-10%이상)이다. 반면에 이슬람(자카드; 수입의 2.5%이하) 세금이 경제적으로 낮춰 주었다.[2] 그 후에도 비잔틴이나 영국의 식민지 등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지만 현재는 이슬람화되었다. 로마제국 안에 있던 귀족 기독교인인은 아랍과 오스만 투르크가 침략시, 그들의 풍요를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2] 북아프리카와 달리 그들이 멸망한 이후, 독립 국가로써, 기독교를 유지했던 에티오피아가 있기 때문이다.

## 2 문화 완충과 예멘 이슬람 분쟁 역사

1962년 이전의 예멘은 이슬람교가 국교로써, 2개의 형태로 분류되고 있다. 대다수 인구가 믿는 북부는 시아계의 자이디 파가 주류이며, 남부는 수니파가 우세하다.[5] 남부 예멘 중 이슬람 법(샤리아)해석으로 나뉜 4 분파 중 샤피 파이다. 동일 모스크에서 예배로, 남·북부 지역의 자이디파와 샤피파 간의 분쟁은 없었다. 기타 수백 명의 유대인이 남아있고, 아덴에 힌두교도와 소코트라 섬에 기독교도가 존재하고 있다. 고대부터 많은 여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예멘인들의 종교는 다신교이다. 그러나 로마 국교화이후인 4-5세기에 수많은 예멘인들이 유대교와 기독교로 개종하였다.[5] 서로마에 고딕과 게르만의 침략시기인, 250년과 406년 사이의 제국의 영토에 걸쳐 기독교가 확산 된다. 로마의 바깥쪽 기독교는 메소포타미아, 아르메니아와 에티오피아를 포함 된다. 당시 인도의 해안서쪽까지 기독교가 넓게 확산되었다.[2] 그러나, 7세기에 예멘의 이슬람교로 개종하였다. 당시 마호메트(무함마드)가 생존하는 시기(570-632)에 페르시아 통치자로 바뀐다. 티하마 평야에서 수니파가, 고원지대에 시아파계의 자이드파가 위치하게 된다. 예멘 통치자에 의해서 대다수 예멘인들도 개종하였다. 수니(sunni)파 이슬람인 샤피(shafi)파가 전체 인구의 50%이다. 17-18세기에는 시아(shia)파인 자이디(zaydi)파는 33%이며, 자이디파는 예멘을 다스렸다. 지금도 신도 수가 적어도 자이디파가 여전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소수 유사한 종파인 이스마일리 시아(Ismaili shia)파(2%)이다.[5] 또한, 남예멘에는 에티오피아와 근접한 소규모의 기독교와 힌두교 집단이 여전히 있다. 샤피드(sayyid)들은 부유한 계층이다. 까디(qadhi)들은 존경받는 계층으로 각 씨족이나 부족은 셰이크(sheikh)가 영향력을 행사한다. 직업에 따라 마나시브(manasib)와 무자이인(muzayyin), 아흐담(akhdam) 으로 구분된다. 예멘은 힌두교처럼 국민을 분류하여 사회를 조직화한다. 9세기에 이르러 자이드파가 라시드 왕조를 세웠다. 그러나 1517년 오스만 터키제국에게 침략되어, 1872년 오스만 터키제국에게 다시 정복되었다. 커피와 글로벌 교류의 요충지인 남부 아덴항은 오스만 터키제국에 정복되었다가, 서유럽이 저지하여, 1953년에서야 자유항이 되었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아덴 항은 1839년에는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점령하여, 증기선의 석탄 보급기지로 사용되어 왔다. 오스만에 대항을 통해,

1911년 자이드파의 이맘 야흐야는 고원지대를 지배하게 되고, 오스만 터키는 해안 지역만 관할하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승전국인 영국은 북부 예멘만 독립시키고 남부예멘은 남아라비아연방내에 두게 하였다. 북 예멘은 정치·종교의 왕정 정치를 했으나, 1955년 내각제로 전환하였다. 1962년에는 쿠데타로 국왕을 추방하고 공화정이 수립되었다. 이런 정치적 종교적인 지역적 특징은 시대적으로 시기별로 구분지어 나타난다. [7,8] 첫째, 1962년 북예멘 공화파 쿠데타, 둘째, 남예멘 독립후 남북 전쟁, 셋째 남북 예멘 통일, 넷째, 남부 분리주의 운동, 다섯째, 수니-시아파 내전 등으로 구분된다. 1967년 공화파 내에서도 내분으로 살랄 정권이 붕괴되고, 1967년 온건파인 이리야니 정권이 등장하면서, 산악지대에서 저항하던 왕당파와 화해가 성립하였다. 그러나 곧 왕당파가 정권 참여를 주장으로, 북예멘의 내전은 1970년 정전 협상까지 계속되었다. 좌파와 우파, 남과 북, 왕당파와 공화파, 수니아 시아파의 복잡한 구조로써, 이들 세력들은 무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 했다. 1979년에는 남북 예멘이 국경선 전쟁으로 관계가 악화되었고. 1990년 이리야니가 왕당파의 정권참여 요구를 수락하며 내전이 종식되었다. 남·북 예멘은 이념적 차이가 나타난다. 왕정을 거치면, 북부는 아랍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공화정을 채택하고 남부는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한다. 현대에서도 경제적 빈곤과 남북의 분단때문에, 남 예멘 지역은 사회주의로 이슬람적 전통이 변했다. 과거의 번성했던 예멘인들은 이슬람이나 기독교가 같다고 생각하기에, 쉽게 종교를 전환할 수 있다. 중동문화와 이슬람에서 거짓말은 그리 큰 죄가 되지 않는 풍조가 일치한다.[2] 예멘과 에티오피아는 최고로 번영했던 아프리카 중동국가 중 하나였다. 그러나 그 이유는 의세와 정부 통제력 상실도 있지만, 현재 석유와 자원이 풍부하고 고품질 커피생산까지 가능함에도 경제적 빈곤은 종교적으로 지방 군벌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 IV. 커피지역 비교

### 1. 예멘과 에티오피아의 문화수용과 지역커피산업

실제 에티오피아와 중동출신들에 대한 편견을 우리는 갖고 있지는 않은가? 이는 예멘인처럼, 에티오피아인은 아프리카인의 유럽인자의 피부색으로 대변할 수

있다. 성경에 에디오피아 내시의 전도이야기가 있다. 첫째, 최초의 이방인에 대한 근거이기 때문이다.[6] 저벨(J. Jervell)은 그를 이방인으로서 기독교 문화를 수용한 사람이라 본다. 왜냐하면, 당시 통념으로 사마리아 지역에서 고벨료 전도는 이방인 출신의 내시가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고벨료의 전도 이야기와 유사하기 때문이다.[4] 두 번째, 지역협력과 기독교 주도의 장벽 허물기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기독교의 주도적 장벽 허물기가 나타난다.[8] 기독교 문화에 전도자 빌립은 적극적 순종자로 나타난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세례받기에 전혀 거리낌 없었다. 이는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누가 기독교 문화의 장벽을 없애는 것을 보여준다.[4] 앞서서 사마리아 지역에 비해서, 빌립의 명확한 모습은 매우 수동적으로 보인다. 반면, 그 이유는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인간적인 생각이 그만큼 높았다는 것이며, 당시의 기독교 문화를 흠모하는 이방인에 대한 유대 지역에서의 수용은 베드로의 고벨료 사건 이후부터 승인되었고 기독교인들에게 지역 편견의 장벽을 허물게 되었다.[6] 그러나, 커피 교류가 중동지방에서 이슬람 문화와 교리가 함께 확산되면서 기독교 문화의 쇠퇴로 그 양상은 달라지게

되었다. 커피의 원산지인 에티오피아가 알려져 있지만, 첫 야생 커피를 재배한 곳은 예멘이기 때문이다. 예멘의 커피는 항구도시인 모카항과 아덴항 통해 유럽을 거쳐 아시아와 아메리카로 퍼져 나가면서 에티오피아와 예멘은 홍해를 사이에 두고 커피산업이 발전해 왔다. [10,11,12] 세계 모든 커피는 모카로 통한다. 그래서, 모카(Mocha) 커피브랜드가 나왔다. 그 브랜드에 의해서 커피 선호도가 정해진다.[13] 예멘은 커피 역사에서 아프리카에 야생 나무로 인식되어 에티오피아 원산지가 예멘에서 창출되었다. 현재는 생산과 수출 측면에서 그 반대의 양상이 나타난다. 그 이유는 내전도 있지만, 마약성 작물인 카트(khat)가 커피보다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 편견의 장벽을 허무는 데는 지역협력을 위한 커피산업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아프리카의 국가에서는 내전으로 커피 산업이 큰 피해를 받아 왔다. 커피 투자 부족과 관리 문제로 인하여, 노령화된 커피나무가 커피 생산에 있어서 품종 개발 등 국제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 표 1을 보면 1990년대에 비해서 30년간 예멘은 커피산업이 갈수록 감소해 왔다. 반면에 에티오피아는 4배 이상 성장해 왔다. 예멘은 정치적, 종교적, 내전 등의 문제가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초기 커피산업처럼, 예멘이 커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변국의 협력, 글로벌 투자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표 1. 1990-2020년 에티오피아 vs 예멘 커피 수출량 (60kg자루 1000개)  
Table 1. Ethiopia vs Yemen coffee exports from 1990-2020 (1,000 60kg)

Crop year	1990/91	1991/92	1992/93	1993/94	1994/95	1995/96	1996/97	1997/98	1998/99
Ethiopia	849	669	1,160	1,332	1,321	1,777	1,853	2,090	1,757
Yemen	73	46	47	82	81	51	70	73	69
Total	73,887	79,768	76,955	74,127	65,963	74,257	81,889	77,988	82,846
1999/00	2000/01	2002/03	2003/04	2004/05	2005/06	2006/07	2007/08	2008/09	2009/10
2,005	1,418	2,277	2,374	2,620	2,702	2,770	2,806	1,868	2,904
61	64	57	47	70	65	69	68	47	43
92,404	87,973	90,270	87,981	89,853	88,135	98,504	94,173	95,466	94,627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3,022	2,832	3,166	3,044	2,872	3,092	3,497	3,654	3,801	3,812
36	55	58	57	53	41	43	42	21	27
102,962	106,378	107,611	113,519	113,976	122,858	121,761	123,587	127,949	126,963

Source: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2021

## 2. 종교보다 문화적 접근

과거 두 예멘과 에티오피아는 동일한 악숨왕국으로 동일 민족으로 유전학적으로 판명되고 있다. 그러나 그 왕국이 붕괴되고 이슬람의 침략으로 예멘으로 무슬림화되고 에티오피아는 홍해를 두고 유대교와 기독교를 유지하며, 에티오피아 정교회로 진화해 왔다. 첫째, 새로운 문화 기술적 지역협력이다. 예멘은 여전히 내전 상태에 있다. 사우디 연합군이 2020년 초에 휴전했으나, 내전 종식이 되도록 국가 간의 협력이 요구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멘 국민들에 대한 신속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인도적 지원으로 지역협력적 차원이 요구된다. 스마트폰 제공과 위성, 인터넷 등 가상현실 기술을 잘 활용한다면 예멘 지역협력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14] 여전히 예멘은 종교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고,[15] 외국인 거주자가 무슬림을 개종

시키려 하거나 타종교를 지역협력 하는 행위 등은 정부에 의한 단속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테러납치를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 지원 방식으로 접근하는 문화가 요구된다. 둘째, 예멘 난민 지역협력 병행한다. 인도적인 배려와 기독교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 [16,17,18] 이러한 대규모 집단 난민의 유입은 한국 지역협력의 새로운 지평이 될 수도 있다. [19] 만약 내전이 종식되어 평화가 도래해서, 고향으로 귀향할 때는 지역협력적인 사람으로, 간접적인 지역협력에 일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나비효과처럼 나타난 난민의 견해는 대부분의 예멘 난민이 무슬림이며 유럽 등 다른 국가에서 난민을 받아들인 후 안보가 크게 악화됐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화의 오류이든 아니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나아가야 하며, 난민을 포용하고 인도주의적 지역협력으로 접근해야 한다.

### 3. 에티오피아에서의 교두보(예멘 교역지역협력)

전통적-역사적 배경을 공유하는 두 나라는 커피의 기원지를 두고도 각자 중주국이라 한다. 이는 역사적 공유관계가 있다. 그러나, 과거 한 왕국 안에 있었다고 보면, 에티오피아어든, 예멘어든 기원지가 같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로 지역협력적인 접근적 이해로 예멘 지역협력을 문화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커피문화와 더불어 커피의 교역로 양국이 협력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를 기독교 국가인 에티오피아를 지역협력 거점 지역으로 활용하여 간접 지원하는 방법도 한 사례가 될 수 있다.

## V. 결론 및 시사점

### 1. 결론

초기 예멘과 에티오피아에 대한 시바의 여왕은 서로 다른 역사로 유래된다. 이러한 내용들이 고고학적 연구조사로 입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교적으로 성경을 공유하는 두 종교적 배경과 역사적 사건을 통해, 지역협력의 공유 마인드를 갖게 한다. 결국은 이슬람화된 시바의 땅 예멘은 현시대에도 50년 이상 내전이 계속되고 있다. 반면에, 에티오피아인들은 지속적인 유대교 수용과 기독교로 전환했다. 동일 지역내에서 기독교적 문화와 이슬람의 문화라는 배경을 서로 다르게 존재한다.

예멘은 기독교적 혹은 이슬람적 배경을 이해하더라도

수니파인지, 시아파 인지, 남북간의 복잡한 구조 등, 주변국의 패권과 내전 양상 등 요소이다. 커피 산업만 제외하고 두 국가의 교류가 끊어지고 문화적으로 동일한 배경을 갖고 있더라도 언어가 종교적인 이유로 달라지고 변화되었다. 결론적으로 이슬람 연구에 대한 지역협력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첫째, 문화 충돌 극복, 둘째, 새로운 전략적 지역협력, 셋째, 종교보다 문화적 접근, 넷째, 새로운 기술적 지역협력, 다섯째, 예멘 난민 지역협력 병행, 여섯째, 에티오피아에서의 교두보(예멘 교역지역협력) 등의 방식을 제안해 본다.

### 2. 시사점

한국인들에게 예멘지역은 커피산업 격차만큼이나 종교적 차이도 크다. 이를 유향이나 몰약의 인센스 로드의 나라로 향수나 약제로 한류 화장품 등 산업적 측면에서도 지리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내전에 따른 파괴된 예멘을 지원하는 한국 정부는 대외 원조(ODA) 측면이 아닌 미래 자원 교류로 할 수도 있다. 기독교 국가인 에티오피아의 내전도, 이슬람국인 예멘의 난민 등 동일한 기원적 문화적 배경과 커피 향료 산업을 공유했다. 한국도 지역협력의 문화와 역사적인 이해로 선도했으면 한다.

## References

- [1] Dave Eggers. The monk of Mokha, New York: Alfred A. Knopf, 2018,
- [2] Seo DS. The Comparison of Urban business activities by Increasing and Declining of Christianity. Logos Management Review. 2016;14(2):119-144.
- [3] You WJ. The Islamic Movement of Yemen and Prospect. Korean Association Of The Islamic Studies. 2004;14(2):33-76.
- [4] Jong CG. Die Identität des Äthiopiens und die initiative Mauerbrechung Gottes in der Missionsgeschichte des Äthiopiens(Apg 8:26-40). The New Testament Society Of Korea. 2013;20(3):721-750.
- [5] Hong MJ. Political Changes and Regional Hegemony Competition in Yemen in the mid-20th Century. Korean Association Of Middle East Studies. 2020;41(1):123-158.
- [6] Crawford, Nicholas G. et al. Loci associated with skin pigmentation identified in African populations Science. 2017;358(6365):eaan8433.
- [7] Duchesne, L. Early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 London: S.n. Print. 1950.
- [8] International Coffee Organization. Historical Data on the Global Coffee Trade Statistics. 2021.
- [9] Hattox RS. Coffee and Coffeehouses The Origins of a Social Beverage in the Medieval Near East Seattle and Lond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8
- [10]Faez M, Dominique G, Saida D, & Nada A. An easy way to discriminate Yemeni against Ethiopian coffee. *Microchemical Journal*. 2019;145:173-179.
- [11]Kim HS & Shim JH. The Effects of Service Qualities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in Coffee Shops. *The Journal of Industrial Distribution & Business(JIDB)*. 2017;8(5) ;95-109.
- [12]Kim D. How Economics Became a Consumption Science: An Assessment. *The Korean Association Of Logos Management*. 2015;13(3);133-152.
- [13]Seo DS. End of the Mediterranean Sea, North Africa and Europe Encounter: Understanding the Economy of Algeria, Tunisia, and Morocco, Edam Books. 2014.
- [14]Lim AN. Emergence of Ethnicity and Identities in Israeli Society: Focusing on the case of Yemenite Jews. *Journal of Mediterranean Area Studies(JMAS)*. 2019;21(4);139-173.
- [15]Seo DS. The way to establish the Innovative Refugee-economies and Cooperative Refugee-urban for Middle East & Africa. *Korean Journal of Middle East Studies*. 2016;37(2);47-72.
- [16]Hill JL. Secularization: A New Testament Perspective. *Africa Journal of Evangelical Theology*. 2010;29(2) ;107-122.
- [17]MacMullen R. *Christianizing the Roman Empire: (A. D. 100-400)*. Yale University Press. 1984.
- [18]Mc Cleary & Rachel M. The Economics of Religion and Secularization. *Review of Faith & International Affairs*. 2007;5(1);43-47.